

배달종사자 보험료 최대 45% 낮아진다

- 배달 공제조합, 보험사 대비 최대 45% 저렴한 공제보험상품* 출시
- 연·월 단위 유상운송용 공제보험으로 가입 부담을 낮추고 보장 내용은 확대
- * **최초 가입자(종합보험) 기준 : 시중 보험사 평균 220만원 → 공제조합 121만원**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*(이하 조합)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, 연·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.

*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(우아한청년들, 쿠팡이츠, 플라이앤컴퍼니, 로지올, 바로고, 만나코퍼레이션, 부릉, 래티브)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

□ 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, 이번 출시될 연·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%* 저렴하게 제공되어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* **최초 가입자(종합보험) 기준 : 시중 보험사 평균 220만원 → 공제조합 121만원**

□ 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월(30일) 단위 보험상품을 별도 마련한 것이 특징인데, 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가입 시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, 무사고 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되도록 하였다.

○ 이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 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어 자발적인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□ 또한 조합은 종사자의 배달 특성을 반영하여 시중 보험사 상품 대비 보장범위를 확대한 선택 특약도 다양하게 제공한다.

○ 보장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는 「외제차 충돌보상 특약」, 골절상 등 중상해(상해급수 1~9급)를 보상하는 「운전자 신체사고」 담보 및 「무보험차 상해」 담보와 「법률비용지원금」(형사합의금 등 지원) 특약도 시중 보험사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다.

□ 이 뿐 아니라 매월 보험을 「자동 재계약」 시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 (1%)해 주고, 월 1만원이 할인되는 제휴 신용카드, 안전교육 이수 및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다양한 제휴 서비스 제공도 구체화할 계획이다.

□ 국토부와 조합은 이륜차 종합보험 수준의 공제보험을 월 평균 10만원* (최초 가입자, 45세 기준)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하여, 그간 비싼 보험료로 가입률이 저조하였던 유상 운송용 이륜자동차 보험가입률**을 5년 내 80%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.

* 유상운송용 이륜자동차 종합보험 최초 가입자 보험료 비교 예시

〈최초가입자 보험료 비교 예시〉		
구분	보험사 평균 ¹⁾	공제 상품 ²⁾
보험료 (연간)	약 220만원	121만원

주1) 보험사 평균 : 이륜차 보험 온라인(다이렉트) 보험료('24.09.23.) 기준
 주2) 공제상품 : 월 단위 상품으로 가입후 1년간 무사고 가정 연간 예상 보험료임

** 2023년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률 : 52.1% (보험연구원 '24.04. 발표)

□ 본 공제보험 상품은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부 사용자 대상으로 초기 안정성 테스트를 거친 후,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*을 통해 10월 7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.

* (안드로이드폰)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
 (아이폰) 앱스토어에서 '배달서비스공제' 검색하여 설치



□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“이번 공제조합이 출시하는 연·월단위 유상운송용 공제상품이 종사자분들께 보험에 가입하여 보다 안전하게 일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며,

“정부 또한 공제조합이 배달종사자의 든든한 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	책임자	팀 장	조태영 (044-201-4152)
		담당자	사무관	강근하 (044-201-4158)